

특별기고



박동규 영북초등학교 학생

기축년 소해 소에 대한 이야기②

소와 관련된 사자성어 풀이

한우를 끌고 나가 소등에 띠를 두르고 등장시켜 수난(受難)을 겪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얼음 판에 낀 환소 눈갈 같다'는 속담처럼 그저 눈만 꺾박꺾박 하며 다가오는 자기 운명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울 따름이고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근간(근간)에 사료(受料)의 폭등(暴騰)과 가격이 저렴(低廉)한 수입 쇠고기로 인하여 한우 가격이 폭락(暴落)하여 송아지 한 마리가 3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한우 값이 1대에 3만 원이 넘는다는 보도는 축산 농가의 피폐(疲弊)해 가는 단면을 볼 수 있어 보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통적인 씨름판에는 우승자에 시상하는 상품으로 환소가 여러 선수와 관객의 눈길을 끌어 인기의 대상이 되고, 근간에는 투우(擄牛)의 광경을 가끔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어 그 환우들의 투지(鬪志)를 읽을 수 있어 우리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어 한우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소의 두 뿔이 서로 길이가 같은 것(兩角) 우각(牛角)은 역량(力量)·기량(技兩) 등의 우열(優劣)이 없는 일을 말함인데 호각(互角)과 같이 쓰인 단어다.

소는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여 소를 소재(素材)로 한 속담(俗談)과 고사성어(故事成語) 등이 술판에 낀 환소 눈갈 같다 소개하지 못해 아쉽다.

우이독경(牛耳聽經)은 소귀에 경 읽기로 어찌 잘 알아듣겠나? 우이송경(牛耳聽經)과 함께 쓰인다. 독(讀)은 읽다, 송(誦)은 외우다, 경(經)은 경서(經書)를 의미한다.

지독지에는 어미 소가 송아지를 핏다. 로 부모가 자식을 무척 사랑함을 비유(譬喻)한 말이다. 모든 동물은 새끼를 희생적으로 기르게 마련이다. 한차 인간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豕)는 핏다, 독(犢)은 송아지이고, 지(之)는 소유격으로 '무엇의' 격조사(格助詞)의 한자다.

한우충동(汗牛充棟)은 책을 수레에 실으면 소가 무거운 땀을 흘리게 되고, 집에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게 되니 많은 책을 가리키는 성어이다. 한(汗)은 땀, 동(棟)은 들보를 나타낸 한자다. 많이 갖추어 놓은 책을 그쳐 쌓아 둘 것이 아니라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위난구 무위우후(寧爲難口無爲牛後)는 소꼬리 보다 차라리 닭의 주둥이가 되라는 말로 규모가 작더라도 우두머리가 되어라. 이는 사자성어로 계구우후(鷄口牛後)라 하여 소의 꼬리가 아닌 닭의 주둥이가 되라는 말이다. 영(寧)은 편안하다는 의미로 쓰이지 아니 하고 여기서는 '차라리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로 비교형으로 쓰이고, 우후(牛後)는 소꼬리를 의미한 것이다.

우모인각(牛毛麟角)은 배우는 사람은 쇠뿔 같이 많으나 성공하는 사람은 기린의 뿔같이 성공한 사람은 아주 드문 것을 비유한 말이다. 성공과 출세에 대한 인식의 차가 다른 것뿐이지 오늘날 다양한 직업으로 능력에 맞게 일해 행복하게 산다면 이가 곧 성공이라 할 것이다. 인(麟)은 기린이고, 각(角)은 뿔의 한자다.

우음마식(牛飲馬食)은 통음대식(痛飲大食)과 같이 쓰이는데 폭음 폭식(暴飲暴食)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많이 마심을 일러주는 말이다. 절음절식(節飲節食)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우탄금(對牛彈琴)은 소를 향해 서 거문고를 타다. 어리석은 자에게 깊은 이치를 말해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탄(彈)자는 거문고의 한자다.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②

포천시의 로하스형 주거단지 건설을 위한 제언(2)



김명수 교수 단국대학교 영문학과

1. 로하스의 환경 친화적인 상품의 활용범위

로하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처음에 유기농이 수직오염을 줄여보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먹거리를 먹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로하스도 마찬가지이다. 로하스는 개인만을 위한 웰빙과 환경 자체만을 위한 생태주의(에코)를 뛰어넘어, 현대인들 개개인이 환경과 더불어 살면서 상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과 환경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생활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로하스는 개개인이 환경 친화적인 상품의 소비와 소비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기농산물, 태양열 같은 자연 에너지, 환경 친화적인 먹거리 문화의 활성화와 그것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 생태 및 환경 교육장, 그리고 에너지 재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활용범위를 매우 다양화 할 수 있다.

등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신생빙족인 로하스족을 미래의 주요 고객의 대상으로 삼아 유기농 브랜드 관련 제품이나 마케팅을 통해 신속하게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머지않아 현대인들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소 결핍증에 시달릴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인들은 산소 생산 공간에 대한 희구가 더욱 강렬해 질 것이다. 포천은 수도권 거주인들의 산소 충전지의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기업들도 포천의 산소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산소충전 공간은 환경상품의 소비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순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로하스족을 포함하여 웰빙족과 웰투킹족이나 슬로비족들에게도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소충전 공간은 다른 환경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 식품업계도 이미 트랜스지방이나 당류나 인공첨가물을 없앤 천연식품이나 전통식품이나 슬로우푸드와 유기농 먹거리 등을 적극 공략한데 이어 산소 휴게실, 산소 쥬스점, 산소 음료, 산소 청정기, 산소 정수기 등의 환경 친화적인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로하스 산업은 장기적인 포천지역산업의 블루칩이 될 수 있다.

활하는 주거단지 내의 생물을 이용한 정화시설에서 모래와 식물의 뿌리로 정화하거나 자갈과 바위 그리고 화강암으로 조성된 배수로나, 모래 필터층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공간의 규모는 100채 내외, 10만 평방미터 내외가 적당하고, 대지는 포천시의 공유지나 정부의 국유지를 활용하면 좋겠다.

4. 포천과 로하스형 단지 건설의 기대효과

첫째로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 입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포천시를 한국 제일의 친환경 도시로 이미지 변신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로 로하스형 단지는 환경 교육장, 산소충전지(산소 휴게실, 산소 쥬스점, 산소 음료, 산소 정수기), 일동원, 이동갈비, 이동막걸리 등과 합목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하면 환경 친화적인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로 로하스형 단지 건설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시정 슬로시티에 부응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의 전진기지가 되어 인구 50만 명의 도시로 확장될 수 있는 인구 흡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로하스형 단지가 한탄강 유역이나 일동이나 이동 등의 지역에 건설되게 되면, 포천시의 의정부에 인구 상승요인이 될 것이고, 인구이동의 중심지도 한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으로 변모할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로 지금 정부는 녹색사업을 주요 국정사업으로 삼고서 50조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려 한다. 4대강 유역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기에 정부가 지역 녹색사업의 활성화에 예산을 분산 투자할 것으로 판단한다. 로하스형 주거단지 건설은 포천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국정사업인 녹색사업에도 부응하고, 포천시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포천시의 이미지 변신도 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포천시는 로하스형 주거단지의 건설을 통해 미국의 데이비스 오스틴이나 네덜란드의 그로닝겐과 같은 미래 지향형 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3. 로하스 주거단지 건설에 필요한 환경 친화적인 조건

첫째로 주거공간은 1층 또는 2층으로 구성되고 주거공간의 벽과 지붕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산소 충전지의 이미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가 되어야 한다. 가령 지붕은 잔디로, 벽은 황토, 회벽돌, 기공벽돌, 진흙벽돌 등과 유리를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현대와 전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도색도 필요하다. 둘째로 관목 숲, 습지와 둔덕, 꽃 재배지역과 야채 재배지역, 야생 꽃 지대의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로 자연 친화적인 순환체계에 의한 우수처리나 빗물처리 시설 등의 생태화적인 사이를 활용이 필요하다. 가령 생

2. 로하스의 미래시장과 포천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친환경 상품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이다. 로하스는 친환경 상품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에 맞추어 식품과 화장품과 의류 등에 로하스 개념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자연에 가까워 지려는 현대인들의 강한 욕구에 부응하여 유기농 농산물을 비롯하여 태양 에너지,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환경 친화적 관광 상품, 대체 의약품

교육에세이 97



이호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맞춤형 교육, 맞춤형 사회

들이 장애인도 하나의 사회 구성이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장애인의 부모도 장애인이지만 정정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자신도 스스로 노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해 가려는 의지를 길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필자는 사십년 가까이 교육의 길을 걸어왔지만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0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던 정정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해 가려는 의지를 길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필자는 사십년 가까이 교육의 길을 걸어왔지만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0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던 정정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해 가려는 의지를 길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필자는 사십년 가까이 교육의 길을 걸어왔지만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0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던 정정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해 가려는 의지를 길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충형교육과 맞춤형 사회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장애인에게 살맛나는 세상이 실현되는 셈이다.

필자는 교사시절에 교사자격증 외에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이 두 개 더 있었다. 하나는 사서교사자격증이다. 전전대통령 재임시절에 문화교육을 표방하고 나온 정권이 도서관 활성화였고 도서관을 활성화하려면 사서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전남대학교 중등교사연수원에서 186시간의 교육과 받고 받은 사서교사자격증이 있고, 다른 하나의 자격증은 두 달 공부해서 시험을 치루고 취득한 특수교사자격증이다. 실로 두 달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 당시 갑자기 특수학과에 관한 공부에 몰두한 결과 건강에도 지장이 있었다. 특수교사자격증은 정신박약 교육을 위한 자격증이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10개월 담당했는데 그때 교육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6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체격도 크고 성격도 차분하고 유순해서 특수학급 담임으로서 반장이 임명됐다. 반장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진다. 원적 학급에서는 하루 종일 말 한 마디도 안 한다고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수학급에서는 교육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즐겁게 했다. 특히 학습과제를 제시해 주고 다 했을 경우에는 개별지도도 해 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더니 특수 학습생활을 신바람 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그 여학생이 한 이야기가 귀에 쩡쩡하다.

“선생님! 왜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니 닫힌 입이 열리고 학교생활이 즐겁고 신이 난 것이다. 다산 학급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특수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 자료를 만들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실히 필요한 맞춤형 교육인 것이다. 「오체 불만족五體不滿足」에서 시사해 주는 내용 중에서 감명 깊은 대목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반면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해 낼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지기가 관료가 장애인에 대해 복지정책이 필요하냐! 라고 외치는 것보다 장애인이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 깨닫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높은 책임이다!' 라고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체다케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강한 메시지가 귀에 쩡쩡하다. 자녀를 둔 부모, 사회, 학교가 편견 없는 맞춤형 교육으로 임할 때 모든 학생과제를 제시해 주고 다 했을 경우에는 개별지도도 해 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더니 특수 학습생활을 신바람 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그 여학생이 한 이야기가 귀에 쩡쩡하다.

포천 한탄강 메기매운탕. 김포에 유명한 한탄강 매운탕을 포천에서 맛보실수 있습니다. 한냄비 28,000원에 4인이 드시기에 충분합니다. 독배기 메기매운탕 1인분 8,000원(혼자서도 드실수 있습니다) 수제비와 라면사리 무제한 공짜!!(참게 추가 가능) 대표 노훈. 단체예약환영 (031)541-5535 주차장완비 · 냉난방완비 미리 예약하시면 빨리 드실 수 있습니다.